

자료 2025-04-11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한국화 작가 등용문 '광주화루' 수상작 전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본점에서 '제8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과 '광주화루 10인의 작가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옥 작가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최우수상 박세진 작가△우수상은 김홍성, 박형진, 전지홍 작가에게 돌아갔다. 또한 기민정, 오세경,

최혜연, 함수지, 허용성 작가 등 5명은 입상을 차지했다.

한국화 부흥을 위해 2016년 시작한 '광주화루 공모전'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과 나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된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난 8년간 한국화 진흥을 위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예술 후원사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의 가능성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 광고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은 선수단의 성적 향상과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여자

핸드볼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지원하며 통 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으며, 우리 고장 출신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이번 후원금이 선수단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지역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수달 현황 조사 등 ESG 강화 '눈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개점 30주년을 맞는 올해 ESG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천동 광주천변 일대에서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날은 생태해설사가 천변에 사는 동식물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며 하

천 생태계의 가치를 알렸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개점 30주년을 맞은 올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ESG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시민과학자 아카데미와 어린이 자연나들이 활동 등을 통해 하나뿐인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커피와 오일로 춘곤증 이겨내세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졸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유용한 품목을 추천한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졸음을 쫓을 수 있는 품목으로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의 '육각커피'가 대표적이며 지난 2021년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후 고객들은 물론 임직원들에게도 커피 맛집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육각커피는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커피를 비롯해 고급 원두를 블렌딩해서 선보이는 드립커피 등이 인기를 얻으며 커피 맛집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고구마맛, 팔맛 호두과자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춘곤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광주신세계에 오셔서 육각커피와 비타민뱅크, 아베다 오일 등을 만나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일상에 활력을 선사할 다채로운 품목들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 업계 최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정비 및 타이어 산업의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공구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해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호 BMW M 클래스’ 공식 후원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지난 3월 29~30일간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개막한 “금호BMW M 클래스”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며 고성능 타이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금호타이어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BMW

사의 고성능 차량이 참가하는 M 시리즈 원메이크 클래스의 공식타이어사로 참여하게 되어 첨단 고성능타이어 기술력을 증명했다. 특히, 고속 주행과 극한의 트랙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이고 BMW M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와 공식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터스포츠의 높은 기준에 맞는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팬들에게 고성능 타이어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산불 피해 복구 위해 구호물품 전달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은 주방용품세트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고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택시운전사X앞새주' 2025 한정판 공개



보해양조(대표이사 조영석)가 영화 ‘택시운전사’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택시운전사X앞새주’ 2025년 한정판을 새롭게 출시한다.

보해양조는 지역의 소중한 가치와 정서를 잇고 공감하기 위해 해마다 4월부터 5월까지 앞새주의 라벨을 바꿔 한정 기간 유통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운전사X있세주' 한정판은 지난해 선보인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색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라벨의 푸른 색은 1980년 5월, 자유와 정의를 염원했던 이들이 올려다보았을 하늘을 의미한다. 보해양조는 이번 라벨로 첫 번째 시리즈의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라는 취지를 이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조영석 대표이사는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택시운전사X있세주’ 시리즈로 지역민들과 더욱 공감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 올해 TV 라인업 공개



삼성전자가 2025년형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진정한 'AI TV'의 시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언박스 앤 디스커버(Unbox & Discover) 2025'를 진행해 대폭 강화된 인공지능(AI)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기존 TV의 역할을 넘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까지 미리 파악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지향하는 비전 AI는 사용자의 옆에서 일상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넘어 기존의 스크린으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비코

◆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기탁



코비코(회장 조광철)가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2억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신 병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보직자와 조광철 코비코 회장, 조준영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광철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위기에 빠져있는데 전남대병원이 있기에 지역민들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며 “지역의료와 전남대병원 발전은 물론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더욱 앞장서 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전MCS

◆ 사창립 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전MCS(사장 정성진)은 본사 기술교육센터에서 사창립 6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순규 위원장, 신동진 발전노조위원장, 조남기 사업안전본부장 등 노와 사 주요 보직자들과 전국의 직원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했으며, 행사는 사장 기념사를 시작으로 노조위원장 축사, 한전MCS인

상·모범직원상 표창, 단체상 시상 및 사진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정성진 사장은 “지난 6년간 우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력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작년 8월 15일 '도서전력 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아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촘촘한 전력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우리 한전MCS가 전력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Power Solution’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에너지 가치를 완성해 나가자”고 미래 포부를 밝혔다.

한전KDN

◆ 임직원 공정거래 질서 확립..."신뢰 받는 공기업될 것"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결의로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아 서약식을 추진했다. 서약식에는 본사 임직원 현장 참여와 지역사업소 실시간 사내 방송

으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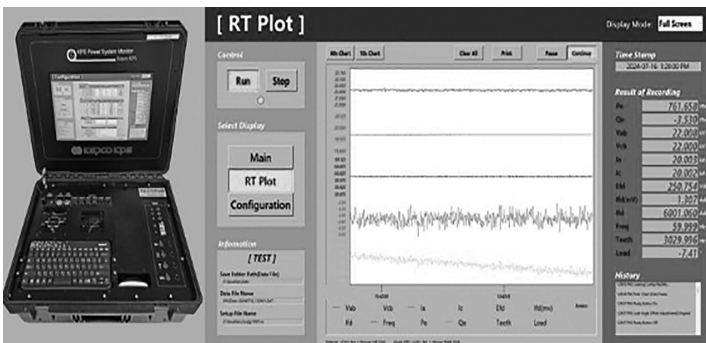
공정거래 문화 조성의 실천을 담은 서약서에 박 사장과 박종섭 한전KDN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임원진이 현장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전 임직원이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박상형 사장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공정경쟁 기반 확대는 준법 경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유좌지기라는 말처럼 스스로 욕심을 경계하고 공정을 유지하는 실천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PS

◆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특화 장비 자체 개발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최근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특화장비를 자체 개발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한층 힘을 더했다.

특히 최근에 계측장비인 KPSM(KPS Power System Monitor)을 자체 개발하면서 기존 장비의 한계

를 뛰어넘는 정확성과 데이터 계측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 장비는 다채널 고속 샘플링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장실증 최종단계를 거친 뒤 전력계통 해석을 위한 데이터 특성 분석 프로그램과 함께 조만간 상용화돼 시험 현장에서 그 효능을 널리 증명할 예정이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인 발전기 기술특성시험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발전설비 운영 최적화 및 계통해석에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 작년 매출 9조 돌파... 리스크 관리·내실 경영 효과



HOBAN

호반그룹이 지난해 총매출액 9조 782억원, 자산 16조 88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154억원, 7871억원

증가한 것으로 그룹 주력사인 호반건설이 업계의 불황에도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다.

지난해 호반건설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18.7%로, 1군 건설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자산은 5조 8932억원, 부채총액은 9304억원, 자본총액은 4조 9628억원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약 7.6% 포인트 줄었고, 유동비율은 500%를 유지해 건설경기 악화에도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보였다. 호반건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률도 최상위권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실 경영에 집중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며 “선별적 수주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80회 금요조찬포럼>

AI와 함께 하는 창의 리더십

(김경수 박사)

1680회 금요조찬포럼은 김경수 전남대학교 박사를 초청하여 「AI와 함께 하는 창의 리더십」 주제로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갖춰야 할 본질적인 역량과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과거의 미디어는 한방향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유튜브, SNS를 통해 누구나 방송사처럼 활동 가능한 쌍방향 디지털 방식으로 1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기처럼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고있으며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AI Literacy)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창의적 파트너’ 이지 만 창의성, 공감력, 비판적 사고력은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 리더십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리더십은 과거 권위적인 리더에서 유연하고 감성 중심의 리더로 전환이 필요하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닌 함께 배우는 러닝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는 “AI 시대에는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기술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더 인간적인 리더십, 더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지만 변화를 배우고 활용할 줄 안다면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20)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8%가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이하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 계획이 적었던 2021년(40.3%)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임.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 중 50.7%는 올해 채용 규모가 '작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① (2025년 신규채용 계획 및 채용규모) 신규채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음(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았고, '작년보다 확대'는 13.8%, '작년보다 축소'는 9.2%, '신규채용 계획은 있지만 규모 미확정'이라는 응답도 26.3%로 집계됨. 신규채용 (계획)규모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수적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았음(복수응답).

② (신규채용 방식) 신규채용 방식은 응답 기업의 70.8%가 '수시채용만 실시한다'고 답했고,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응답은 22.6%, '정기공채만 실시한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되었음. 신규채용 집중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 없이 인력 수요 발생 시'라는 응답이 85.8%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응답은 '매년 상반기(1~6월)' 7.6%, '매년 하반기(7~12월)' 5.2% 순

③ (채용 시 평가 요소) 신규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했음. 특히, '직무 관련 업무경험'이라는 응답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직무 관련 업무 경험' 응답률 추이(%): 58.4('23)→ 74.6('24)→ 81.6('25)

④ (신규채용이 시급한 직무) '제조·기술·기능*'이라는 응답이 26.0%, '생산관리'라는 응답이 25.8%로 높았음(복수응답).

* 제조·생산, 정비, 물류, 기사 등 생산·작업 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무

※ 그 외 응답은 'ICT 및 R&D' 22.2%, '기획·마케팅' 17.0%, '인사·재무' 12.2%, '시설관리·돌봄 등 서비스' 10.8% 순

⑤ (올해 채용시장 트렌드)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직무 중심(실무형인재) 채용 강화'라는 응답이 53.0%, '수시채용 증가'라는 응답이 44.2%로 높았음(복수응답).

※ 그 외 응답은 '대·중소기업 채용시장 양극화' 19.6%,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14.2%, '다이렉트 소싱(Direct Sourcing) 증가' 9.0% 순

- 경총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기업들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경험이나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ESG 경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어 “정부도 채용시장에 한파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함.

◆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와 정부는 지난 3월 13일 민·관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체결
 -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동 캠페인은 4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이 함께 외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적극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민간 협·단체는 소상공인 점포들이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포함.
- 이에 우리 협회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에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 여건에 맞는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

※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예시

- ▶ (선구매·선결제) 생산활동 등 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
- ▶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노력, 지역 축제·이벤트를 사내에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활용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상품권 지급 등 노력) 협력기업이나 사내 직원들에게 선물 제공 시 우리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을 우선 고려
- ▶ (기타) 이외에도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노력

◆ 고용노동부,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27)

〈 고용 부문('25.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9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0.1%) 늘어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입·이직) 입직자는 87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1.7%) 감소했고, 이직자는 8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7.1%) 감소

〈 근로실태 부문('25.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96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7만 8천원(15.8%) 증가

※ '25년 1월 임금총액 증가는 전년에 2월이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1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시간(14.8%) 감소

※ '25년 1월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4일 감소(22일→18일)한 영향

◆ 한국은행,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3.25)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중 93.4로 전월(95.2)대비 1.8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 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100.7('24.11)→ 88.2(12)→ 91.2('25.1)→ 95.2(2)→ 93.4(3)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55)는 전월과 동일하고 향후경기전망CSI(70)는 전월대비 3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49)는 전월과 동일, 임금수준전망CSI(117)는 전월대비 1p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2.7%로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2.8('24.11)→ 2.9(12)→ 2.8('25.1)→ 2.7(2)→ 2.7(3)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50.5%), 공공요금(48.8%), 공업제품(31.2%) 등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3월 3.3%로 전월대비 0.1%p 상승

※ 물가인식 추이: 3.3('24.11)→ 3.3(12)→ 3.3('25.1)→ 3.2(2)→ 3.3(3)

◆ 기획재정부, 「AMRO, 2024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보도 (3.21)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3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주요 내용 〉

- (경제성장률) AMRO는 2025년 우리 경제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2024년(2.0%)보다 0.4%p 하락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25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2024(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전망
- (상방 리스크) AMRO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등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 언급
- (하방 리스크)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지적.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PF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
- AMRO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 강화,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 또한,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 및 역동성 강화, 출산율 제고,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시 美 관세부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납품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부당감액행위,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명령(벌점 1.5~2점)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부당감액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smes.go.kr/poll/)에 신고 가능

◆ 통계청,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31)

- (생산) 2025년 2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5%), 광공업(1.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0.5('24.10)→ 1.2(11)→ 1.8(12)→ 3.0('25.1)→ 0.6(2)
-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9.1%), 전기장비(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전년동월대비 7.0%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5년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1%로 전월대비 0.4%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73.1('24.10)→ 71.1(11)→ 73.2(12)→ 73.5('25.1)→ 73.1(2)
- (제조업 재고율) 2025년 2월 제조업 재고율은 107.8%로 전월대비 2.8%p 하락(전년동월 대비 2.9%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111.0('24.10)→ 113.6(11)→ 103.5(12)→ 110.6('25.1)→ 107.8(2)
- (소매판매) 2025년 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 '24.3월(1.5%)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0.7('24.10)→ 0.7(11)→ 0.5(12)→ 0.7('25.1)→ 1.5(2)
 - *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12월(0.6%)부터 2024년 12월(2.5%)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보합 수준에 그친 후 2월에는 다시 감소.
- (설비투자) 2025년 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3.3%)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8.7% 증가(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 3.4('24.10)→ 1.7(11)→ 7.2(12)→ 15.7('25.1)→ 18.7(2)
 - *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건설투자) 2025년 2월 건설투자는 건축(2.2%)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토목(13.1%)에서 공사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전년동월대비 21.0% 감소)
 - *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24.8월(2.1%) 이후 '25.1월(4.6%)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25.2월(1.5%)에는 증가 전환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0.5('24.10)→ 3.1(11)→ 1.8(12)→ 4.6('25.1)→ 1.5(2)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전월대비 0.1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전월대비 0.1p 상승)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 (4.1)

- **(총괄)** 2025년 3월 수출은 582.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으며, 수입은 533.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1.3('24.11)→ 6.6(12)→ 10.1('25.1)→ 0.7(2)→ 3.1(3)
 - 2025년 3월 무역수지는 49.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55.7('24.11)→ 64.9(12)→ 18.0('25.1)→ 41.5(2)→ 49.9(3)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 중 석유제품(28.1%), 석유화학(10.8%), 철강(10.6%) 등 8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선박(51.6%), 컴퓨터(33.1%), 반도체(11.9%), 자동차(1.2%) 등 7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 ※ **2025년 3월 15개 품목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선박) 51.6, (컴퓨터) 33.1, (무선통신기기) 13.8, (반도체) 11.9, (바이오헬스) 6.9, (디스플레이) 2.9, (자동차) 1.2, (일반기계) 3.5, (자동차부품) 3.6, (이차전지) 4.7, (섬유) 6.0, (가전) 7.3, (철강) 10.6, (석유화학) 10.8, (석유제품) 28.1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인 인도(0.4%), 중국(4.1%), 중남미(16.9%) 수출은 감소했으나, 일본(2.2%), 미국(2.3%), 아세안(9.1%), EU(9.8%), 중동(13.6%), CIS(30.1%) 수출은 증가

◆ 통계청,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2)

-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1.5('24.11)→ 1.9(12)→ 2.2('25.1)→ 2.0(2)→ 2.1(3)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4.2%), 음식 및 숙박(3.0%), 교육(2.9%),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1%)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1%)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2025년 3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2. 노사 동향

◆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논의 난향

- 정치권에서는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 지속
 - 여당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야한다는 입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 25「원내대책회의」에서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반면, 야당은 ‘국회 중심의 논의’ 기조 하에 연내에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
 -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위원장:소병훈 의원)를 구성해 논의 예정인 가운데 민생연석회의에서도 법정 정년연장 의제를 포함한 20대 민생의제 발표(3. 12)
- 한편, 민주노총은 3. 21「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주요 요구로 내세울 것을 의결

◆ 국회 내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토론회 등 진행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조율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는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
 - 국회의장실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3. 21)에서 경영계, 노동계 의제를 각각 3가지로 압축·조율할 것을 제안
 - 국회의장실은 경영계 논의 의제로 ▲지역 및 첨단·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 ▲산업 전환 대응 직업훈련 체계 구축,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제안
 - 또한, 노동계 논의 의제로는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다양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제도적 지원, ▲돌봄종사자 보호와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제안
- 경사노위는 3. 26「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대토론회 개최
 - ※ 한국노총은 지난해 비상계엄(12. 3) 이후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 23)에 이어 두 번째로 토론회 참여
 - 금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부, 경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가운데 ① 저성장, 인구 감소,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사회적 대화 역할 등 논의

- 한편, 한국노총은 금번 토론회 참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표명

◆ 산업현장에서는 주주총회를 활용한 노동계 투쟁 증가

- 한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의 분사 중단을 요구하며 3. 26 주주총회가 열리는 카카오 본사 앞에서 임단협 결렬 선언
 - ※ 카카오는 3. 13 기업(다음) 분사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회는 카카오 분사 및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3. 19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했고, 지회장은 3. 19부터 단식농성 돌입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의 분사결정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4월 총파업 예고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고용부가 3. 31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예정
 - ※ 최저임금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 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최저임금위원회는 4. 22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잠정)이며, 노동계는 이날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에 적용할 근로자 단일안 마련 계획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2,600원 제시
 - ※ 또한, 임단협 요구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 민주노총은 6.2% 인상을 제시
- 한편, 노동계는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교체를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준비 활동 진행
 - ※ 한국노총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민주노총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교체 신청

◆ 야당은 국회 차원의 정년연장 논의 진행

- 경사노위가 4월 내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 2 정년연장 TF 발족
 - ※ 정년연장TF 위원은 소병훈 의원, 김주영 의원, 이정문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17명으로 구성
- 정년연장TF는 ① 4~7월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 ② 7월~8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 ③ 9월~11월 정년연장 입법안 발표 및 입법 추진 계획
- 한편,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 25「원내대책회의」에서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전자·IT업계와 철강·조선업계의 임단협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

- LG전자가 올해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3. 12)한 가운데 일부 전자사, IT사도 2025년 임단협 교섭 마무리
 - 삼성전기 노사는 3. 31 임금교섭 마무리
 - ※ 삼성전기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3. 27~31) 결과 79% 찬성으로 가결됨.
 - 주요 합의안에는 ▲임금 5.0% 인상(기본급 3%+성과 인상률 2%), ▲특별 조직활성화비 30만원 지급 등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도 ▲임금 5.1% 인상(기본급 3%+성과 인상률 2.1% 인상), ▲복지 포인트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3. 27)
 - ※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4. 3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 또한, 네이버 노사도 ▲임금 5.2% 인상, ▲설·추석 명절 수당 80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 등에 합의(4. 2)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안내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금요조찬포럼 회원사 무료 참가

- 경제·경영 이슈 및 인문학 등 전문가 초빙 강연
- 회원사 CEO(임원), 기관단체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광주뿌리산업구인난 개선, 청년성장직장적응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장년내일센터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최대 6개월) ·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최대 6개월) ·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연 1회) 	716-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관리자(직책,근속기간 제한없음) -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 ~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 -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 -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작성 등 *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교육 가능 	654-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716-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

기업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광주고용복지+센터와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하여 중장년전담창구를 통해 만 40세이상 중장년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서비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서비스 01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고용24' 구인 인증 및 채용대행 서비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구인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 구인정보 등록 → 승인 기관 선택시 '중장년내일센터' → 광주 → 광주경영자총협회' 선택 (우측참고)
- 승인 후 적합자 알선 등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인증서비스 기관찾기

기관구분선택	시/도 선택	인증서비스 기관선택
<p>고용센터</p> <p>고용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p>	<p>관할지역</p> <p>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p>	<p>인증서비스 기관</p> <p>(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광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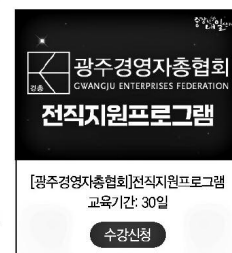
닫기 적용

기업서비스 02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재직 및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퇴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4시간
- 경력자산정리, 중장년 취업시장 뽐내기, 다양하게 일하기, 경력대안 탐색하기 등
- 온라인(e-러닝) 교육 : www.elifeplan.or.kr(회원 가입) → 수강신청 → 전직지원(온라인) →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직지원프로그램 수강신청 → 1~13 모듈 학습하기, 학습 후 설문 + 시험 완료하면 수료



기업서비스 03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100세시대를 대비한 일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년나침반 프로그램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6시간(강의실, 시간, 모듈 구성은 기업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
- 생애경력설계 이해하기,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재무관리, 건강관리 등
- 다과, 점심, 기념품, 수료증 제공